

# 채취량 반토막 난 재첩, 바닷물에 밀려 상류로 상류로

## 유량 줄고 해수면 상승...섬진강 생태계 이상 신호

생태의 보고인 섬진강이 심상치 않다. 전북 진안군에서 발원해 전남·북과 경남을 거쳐 망덕포구까지 연장 212.3km에 이르는 섬진강이 유량 감소와 해수면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각종 수지에서 이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재첩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고, 주산지가 강 상류 쪽으로 10km 이상 올라갔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강 하류에 주로 서식하는 재첩 주산지가 강 상류쪽으로 이전했다는 것은 바닷물이 강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섬진강교~섬진강대교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염해피해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량 줄고, 해수면 상승=섬진강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홍수가 일시에 유출되고 갈수기에는 유출량이 적어 물 이용과 치수 측면에서 모두 취약하다. 또 전북 임실의 섬진강댐 등 수계에 위치한 모두 7개의 댐으로 인해 강 하류 유량이 과거에 비해 약 12% 이상 감소한다. 해수면은 연평균 0.12cm(목포)~0.15cm(여수)씩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강 하류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재첩이다. 재첩은 1960년대만 해도 섬진강 하구 태인도 일원이 주산지였으나 1990년대 이후 하중 섬진강대교, 즉 상류 15km 인근까지 주산지가 이동했다. 주산지 아래는 이미 바닷물로 찼다는 것이다.

재첩 어획량도 급감하고 있다. 섬진강환경쟁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4만 6000t에 이르렀지만, 지난 2012년 34만 2000t, 2013년에는 33만1000t으로 12년만에 반토막이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섬진강의 유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어민들의 생계 문제, 강 하류 유역의 염해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상류 수계 7개 댐 막아

## 유량 12% 이상 감소

## 하류 '바다화' 급속 진행

## 李志사 “내서댐 건설 반대”

## 물순환 건전성 회복 시급

◇“섬진강 유량 또 줄이는 내서댐 건설 반대”=전남도가 섬진강 유량 확보 종합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이낙연 도지사가 지난 8일 내서댐 건설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댐 건설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구례 토지면 내서댐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도록 추진하고, 섬진강 하류지역의 하천수 감소와 광양만권 개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염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왔다.

여수와 광양지역의 산업단지 개발로 2021년에는 연간 약 1억t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1월 섬진강 수계인 구례 토지면 지리산 자락(피아골 계곡)에 내서댐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남도와 지역 주민의 반대로 현재 답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 지사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자들과 구례 토지면 내서댐 예정지를 방문해 해답을 모색했다. 이 지사는 현장에서 “내서댐을 건설하면 주변 환경에 손상을 주고, 섬진강의 유량 유지에 나쁜 영향을 주며, 섬진강 하류의 염분농도를 올릴 우려가 있으므로 내서댐 건설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0년까지 160억원 투입 사업 시급=전남도는 구례 남도대교~광양 망덕포구에 이르는 33km 구간의 물순환 건전성



섬진강의 유량 감소 등으로 재첩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주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재첩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강에 종패를 뿌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회복을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16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천 유지용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해수 유입을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섬진강의 수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량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염해피해를 조사하는 용역도 발주할 방침이다.

적정 유량이 산출되면 7개 댐의 물 배분 계획을 재조정해 유량을 확보하고 섬진강 하도 정비를 통해 저류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수중보 등을 설치해 바닷물의 유입을 막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전남도는 내년에도 섬진강 유지유량 적정성 재평가 용역비로 국토교통부에 국비 10억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

# ‘경제 살리기’ 한국판 뉴딜정책 펼친다

## 정부, 임금인상·재정 집행 등 총동원...효과는 미지수

정부가 임금 인상과 재정 집행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건설 등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유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도 펼치기로 했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않으면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일각에서는 디스플레이선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이 효과를 불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있다.

주요 경제 지표는 어둡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물가는 담배값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마이너스다.

지난달의 물가 상승률(0.5%)은 1997년 7월 이래 15년7개월만에 최저치다. 수출은 지난 1월 10.0%, 수입은 16.9% 각각 줄어 ‘불황형 흑자’ 구조가 더욱 선명해졌다. 정부도 최근 경제동향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은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스플레이선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저물가의 장기화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중 올해 예정된 10조원을 상반기에 모두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사업을 이용한 ‘뉴딜 정책’도 추진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대형 공공사업을 활용, 유효 수요를 촉진한 것 것처럼 민간사업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까지 포함해 민·관이 리스크를 적절히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효 수요 진작을 위한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기업에 임금 인상을 계속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공무원·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이런 노력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일단 기업들이 잇박자를 내고 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도 최근 영업이익의 악화를 이유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임금을 동결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한 정책 패키지 10조원이 경기를 살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해 27기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46조원의 정책 패키지 중 잔여분은 15조원이다. 이미 31조원은 집행이 됐다. /연합뉴스

# 광주시 ‘문화전당 개관 지원본부’ 구성 정례협의회 월 2차례로 늘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을 위해 광주시가 지원본부를 본격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정례협의회도 강화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전당 개관 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산하에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총괄지원반과 문화예술행사 등을 담당할 문화관광반, 숙박시설 확보대책을 추진할 숙박 보전반을 두기로 했다.

또 경관정비반, 교통대책반, 안전반, 시민참여반, 홍보반, 자치구 지원반 등 총 9개반으로 구성하고 개관에 따른 반별 업무

영역을 수행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매월 1차례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지원계획과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정례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요청사항을 지원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남도간 정례협의회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7월2일~8월2일 전당 사전공개, 9월 개관행사, 9월4일~9월27일 개관축제를 총괄하고 국내외 홍보와 내외국인 유치전략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광·숙박·교통·도시환경 등 행정지원과 문화예술행사 개

최·관광상품 개발·대외홍보·시민참여 등을, 전남도는 관광상품개발·공동홍보, 마케팅·숙박 등 행정지원을 분담한다.

시는 그간 월 1차례 했던 정례협의회를 두차례로 늘리고 문화전당 개관에 대비한 현안사항 발생시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윤정현 광주시장은 “개관 준비기간이 짧아 임체적이고 밀도있는 지원·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소통하면서 문화전당 운영에 지역여건을 반영하는 등 개관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09:00~20:00(연휴무휴))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리치투어 광산구 월계동 협면.2여위 1층	062)431-0102
가림여행사 수완점 수원동 196 우2길(에이리)2층	062)955-5230
세정투어 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대한민국 여행의 기준, 여행의 국가대표 하나투어

**[무안출발] 장가계 전세기 취향**

항공 상하이 항공 (FM 항공) / 티웨이 항공 (TW)  
출발일 4월 ~ 6월  
일 정 화(3박4일), 수(3박5일), 금(4박5일), 토(4박6일)  
\* 전세기 운행 스케줄을 다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b>하나Pack</b> <b>최저가</b> C.J.FF01 장가계 4일,5일,6일 출발일 999,000원~ 리무진 버스 + 열차까지 정기항공(7일~7시)까지 999- 산책(1인/2인) 포함	<b>하나Pack</b> <b>최저가</b> C.J.FF01 장가계/통고성 6일 출발일 1,149,000원~ 리무진 버스 + 열차까지 정기항공(7일~7시)까지 999- 산책(1인/2인) 포함
---	---

**[무안출발] 장가계 전세기 설명회**

중국 지역 스마일 샐러  
가래향 감동의 물결  
하나투어와 함께하세요!

일시: 3월 25일(수) 오후 7시~8시  
장소: 광주 두르드카페  
문의전화 062) 228-1199

**설명회 참석자 제공 혜택**

참석자 전원 다채로운 경품 제공  
두르드카페 샌드위치 with 아메리카노 제공  
사전 전화 예약 필수

**하나투어프리미엄 로드샵에서 추천하는 하나허니문**

<b>클래식 APW17A_KEA</b> 세부 5일 (베이비문) ,파크 아일랜드 출발일 1,463,000원~ 현지지비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3~6월 토/일/월요일 항공비(국제선)만 별도 리액스 증정 (세부 현지 중정) 마사지 2회 포함 (에코호텔,아이스파, 전선마사지)	<b>클래식 APW12E</b> 보라카이 5일 리액스리조트 리조트 출발일 1,180,000원~ 현지지비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3월~6월 일/월요일 호텔투어/항제마사지 / 디올투어 / 세일링보트 / 버그카 / 커피머신/사탕스크림 포함
<b>클래식 APW197_C</b> [하나TV쇼핑] 코사무이 6일 W리조트 출발일 1,900,000원~ 현지지비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3월~6월 토/일/월요일	W 리조트 내 디너 업그레이드 / WOO BAR 음료 제공/태국 어디서나 1GB 데이터 사용가능한 U-SIM 제공

\* 여행상품 가격표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담차량비, 관광상품개발비, 운송보험비(사망),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요금 등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류할증료의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기사 가이드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책(1인/2인)은 현지에서 가이드와 함께하며, 그 외 다른 산책(1인/2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책(1인/2인)은 인원 불이행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투어 여행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통보를 받으십시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8 (중로구점)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호출 2회출발 이상 2인 1일/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산/불만처리 T1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 원 가입